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제주도와 류큐열도의 교류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池田 榮史*

차 례

1. 머리말
2. 류큐 열도를 중심으로 한 韓·琉교류사 연구의 동향
3. 류큐 고고학연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
4. 결 론

1. 머리말

류큐열도는 일본과 타이완 사이, 약 1,200km 해양안에 위치한 여러 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섬들은 그 지리적인 관계와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의해 屋久島·種子島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 奄美諸島에서 오키나와 제도까지의 중부권, 宮古·八重山諸島로 이루어진 남부권으로 셋으로 나누어진다(國分 1959·1966). 그 중 북부권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화권에 속하고, 중부권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중세의 단계에서는 독립한 류큐왕국을 형성했다. 남부권은 선사문화에 있어서 북·중부권은 전혀 달리, 중세에 이르러 중부권에 성립된 류큐왕국으로 포함되었다. 이후, 얼마간의 변천을 거쳐, 오늘날 이들의 류큐열도의 세계의 문화권은 일본에 속하게 되었다.(池田 1991).

그런데, 이러한 류큐열도의 역사, 더불어 일본본토와의 관계를 개관했을 때,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한국에 있어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의 관계를 연상할 수 있을 것

* 류큐대학 법문학부 교수, 고고학 전공

이다. 실제로,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와 필자를 포함한 류큐대학의 교수에 의해서, 쌍방의 비교 검토를 행하는 국제학술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단지, 이 국제학술연구는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각자 성과를 발표하는 단계에는 아직 도달해 있지 않다.

그러나, 양지역의 비교연구를 앞두고, 필자의 전문 분야인 고고학 연구의 입장에서부터 류큐 열도와 한반도 및 제주도간의 물질문화교류에 관해서 정리해 두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류큐 열도측을 중심으로 양지역간의 물질문화교류의 검토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근거로 필자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류큐 열도를 중심으로 한 韓·琉교류사 연구의 동향

한국 제주도와 류큐열도간의 물질문화 교류에 관해서,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검토를 덧붙인 論考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그와 같은 시점에서 쌍방을 방문한 연구자가 거의 없었던 데 기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 한국 全域과 류큐 열도간의 물질문화 교류에 관해서는 이미 몇 개의 論考가 발표되었다. 그 가운데, 근년, 일본측에서 출판되어진 것으로는 李亨求씨(李 1989)와 下地安廣씨(下地 1997)의 논문이 있다. 또, 三島格씨(三島 1977·1989)와 西谷正씨(西谷 1981)의 논저에서는 韓·琉의 물질문화 교류에 관해서 각각의 발표단계에서 시기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 문헌을 읽어보면, 일본의 韓·琉 물질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동향에 관해서, 대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들 선행 연구 성과를 참고 하면서, 그 개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韓·琉간의 교류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자료로서 최초로 주목되어진 것은 曾畑式토기(줄문토기)이다. 曾畑式토기는 일본의 繩文전기에 해당되며, 류큐열도에서는 중부권에 속하는 오끼나와 본토의 渡具知東原유적·伊禮原B유적"과 奄美大島下山田유적 등에서 출토된다(中村1981, 岸本外1984). 曾畑式토기는 한국 櫛文토기와 계통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것이 한국으로부터 류큐열도 중부권까지 분포하는 것은 선사 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행동의 범위의 확대와 정보전달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주목된다.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제주도와 류큐열도의 교류

繩文문화에 이어서, 일본열도에서는 稻作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彌生(야요이)문화가 성립한다. 그러나 류큐열도에서는 중부권에 彌生문화의 영향이 일부 인정되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대의 繩文문화와 같이 수렵·채집경제단계의 생활을 계속해왔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배경도 있어서, 彌生문화기에 있어서는 류큐열도와 한국과의 교류, 교역을 뒷받침할 만한 고고학적 자료가 거의 확인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彌生문화기에 있어서 류큐열도 중부권의 유적으로부터는 중국 漢代의 三翼鐵와 五銖錢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자료의 류큐열도로의 招來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경유한 이동이 생각되어지고 있고, 이점에서 보면, 상호의 교류·교역을 얘기하는 자료가 韓·琉쌍방에 있어서 머지않아 확인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彌生문화기 이후의 일본열도는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문화의 흡수에 힘쓰고 사회조직을 비롯한 큰 역사적 전개가 행해진다. 이에 대해서, 류큐열도에서는 10~12세기경까지 수렵·채집경제 단계의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고, 여기에 일본과 다른 역사를 밝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인정된다. 더욱이 이 彌生문화로부터, 10~12세기까지의 류큐열도 중부권의 선사문화는 오키나와 貝塚時代 후기문화(多和田 1956·高宮 1993·1994)라고 불린다. 이 사이의 류큐열도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추진한 흔적은 없고, 일본 혹은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움직임이 있었던 경우에만, 이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 사이의 류큐열도에도 韓·琉간의 교류·교역을 보여주는 고고학적인 자료의 출토는 현시점에서는 거의 인정되어지지 않는다.

10~12세기 이후의 류큐열도에서는 농경이 정착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여러지역과의 광범한 교류·교역이 전개되어져, 15세기에 이르러 류큐왕국이 성립한다. 이 사이의 류큐열도의 여러 유적으로부터는 중국산 도자기를 비롯해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산물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前代에 비해서 급속히 사회가 변모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는 韓·琉의 교류·교역을 말해주는 자료도 포함하고 있고, 고려기와와 고려청자, 朝鮮鐘 등"이 존재한다.

또 이 무렵의 韓·琉교류는 문헌자료에도 넓게 인정되어지게 되어, 이러한 문헌기록에 근거한 교류사연구로부터 류큐열도로의 고려기와를 비롯한 물질문화 유입의 실마리를 푸는 작업(田中1991)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15세기에 성립된 류큐왕국은 그 후 1609년 江戶德川幕府의 허가를 얻은 薩摩藩에 의한 침공을 받아 항복하고, 이후 독립국으로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일본의 幕藩

體制하에 편입되었다. 薩摩藩에 의한 류큐침공의 명목의 하나로 壬辰倭亂(文祿·慶長の役)에 즈음하여 薩摩藩이 요구한 군비부담을 류큐측이 거부한 것이 들어지고 있는 것은 韓·琉의 교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사실중의 하나일 것이다. 게다가, 薩摩藩에 연행되어진 류큐왕족이 류큐로 돌아갈 때, 薩摩藩에 요청해서 동반한 朝鮮人 陶工 3명에 의해 류큐에 있어 요업의 쇄신이 행해졌고, 오늘날 류큐를 대표하는 요업산업인 壺屋燒로써 전해지고 있는 것(比嘉 1942)도 임진왜란 종결 400년을 기념하는 本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기할 만 한 것이다.”

3. 류큐 고고학연구에 있어서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류큐열도의 역사는 10~12세기부터 급속한 전개를 이루어, 15세기의 류큐왕국의 성립에 의해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따라서 이 사이의 추이는 류큐열도의 역사연구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사이에 남겨진 문헌기록, 특히 류큐열도 내부에서 쓰여진 문헌기록은 극히 적고,⁵⁾ 문헌사학에 의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그 해명을 위해서는 고고학적인 조사·연구성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고고학에서는 이 시기를 특히 구스쿠시대라고 부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구스쿠시대를 한국사의 시대구분과 대비하면, 고려시대(AD 918~1392)와 조선시대(AD 1392~1910) 前半에 병행되지만, 구스쿠시대의 류큐열도에서는 韓·琉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의 하나로서, 「癸酉年高麗瓦匠造」 銘瓦가 출토되었다. 통칭 「高麗瓦」로 불리워지는 이들의 자료는 명문이 동일하며, 고려의 造瓦기술로 제작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류큐열도의 각 유적으로부터는 제품으로서의 高麗瓦가 대량으로 출토되지만, 이것을 燒成한 窯跡가 현재 확인되어지고 있지 않다.⁶⁾ 이 때문에, 이들 기와의 생산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져, 제품으로서 류큐로 반송되어진 것이 상정되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어짐에 따라, 출토자료의 胎土中에 류큐열도산 요업제품의 특징인 石炭岩粒의 혼입이 인정되어지는 것과 각 유적으로부터 출토된 高麗瓦를 몇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은 제작기술이 점차 현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등으로부터, 현재는 류큐열도내에서 생산되어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高麗瓦」에 보여지는 「癸酉年」의 실연대에 관해서는 그 해석 여하에 따라서 韓·琉간의 역사를 생각할 때, 몇개의 중요한 문제를 제공하게 된다. 「癸酉年」을 포함하는 十十二支는 60년으로 일순한다. 따라서 고려시대(AD 935~1392)에 순회해 온 「癸酉年」 가운데서 류큐열도의 구스쿠시대에 해당되는 연대를 들면, 1153년, 1213년, 1273년, 1333년, 1393년이 해당된다. 「高麗瓦」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중의 1153년설(伊東·鎌倉 1937, 岡田 1960등), 1273년설(大川 1962, 嵩元 1972, 關口 1976등), 1393년설(三島 1989등)이 주장되고 있고,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근래의 10년 이래 진행되고 있는 首里城跡, 浦添城의 조사에 있어서, 高麗瓦 출토 유구는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에 해당된다.(下地 1986·1990, 當眞·上原 1987, 上原 1996)

이들의 성과로부터 보면, 「高麗瓦」에 보여지는 「癸酉年」은 14세기 후반인 1393년에 比定되는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사에서는 이 해의 전년에 고려왕조는 멸망하고, 조선왕조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있다. 1393년설을 주창하는 三島氏는 이에 입각해서, 고려왕조의 유민이 류큐에 渡來해 高麗瓦의 생산에 관계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류큐열도의 「高麗瓦」의 등장에는 고려왕조의 멸망이 크게 관계한 것이 된다.

또, 종래 주장되어지고 있던 학설 중에서, 1153년설은 유입도자기를 비롯한 최근의 류큐열도 구스쿠시대 연구의 상황으로보아 성립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1273년설은 류큐측의 王統傳承을 기초로 한 추정연대였지만,⁸⁾ 류큐열도에 있어서는 이 때부터 점차로 城郭적 양상을 보이는 시설(소위 구스쿠)의 구조화, 대형화가 진행되는 경향에 있고,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사와의 관련에서 보면, 이 전후에는 몇가지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한국 고려왕조에서는 몽골제국의 한반도 침공에 대해서, 1270년 강화가 체결되어져 國都를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천도했다. 이에 반대해 대몽골전의 계속을 호소한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 나아가 제주도를 本據로써 저항을 계속해, 1273년에는 평정되었다. 이를 진정시킨 몽골제국은 고려군을 편입해서 일본으로의 침공을 도모하지만, 폭풍우에 의해 실패한다(文永の役). 그 후, 몽고제국은 국호를 元으로 고치고, 1279년 南宋을 멸망시키고 중국대륙을 통일해, 南宋군과 고려군을 편성해서, 1281년 다시 일본으로 침공하지만 역시 폭풍우에 의해서 실패한다(弘安の役). 1273년은 그야말로 이러한 격동의 해이고, 이러한 시대상황으로부터 보면, 韓·琉를 포함한 동아시아

아에서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은 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 추측되어진다. 1273년설을 보면, 류큐로의 高麗瓦 제작기술의 전파도 그 영향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와 같은 「癸酉年」의 실연대의 比定문제를 생각할 때, 제주도는 극히 매력적인 섬이다. 탐라로 불리워져 독자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는, 고려시대부터 그 영향 아래에 놓여져, 12세기 전반에는 고려왕조에 의해 탐라군이 설치되어졌다. 그러나, 몽골제국에의 저항전을 계속했던 삼별초가 파멸한 후의 1275년, 제주도는 중국 元朝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368년의 元朝의 멸망과 이에 뒤따른 明朝의 성립을 거쳐, 1392년에 건국된 조선시대에 이르러 제주목이 설치되어져, 조선의 통치하에 속하게 된다. 즉, 류큐의 高麗瓦에 있어서, 「癸酉年」의 유력한 比定연대로 보여지는 3가지설 가운데,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되어지는 1273년·1393년의 전후에는 제주도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있어서의 역사에 관해서 류큐에 있어서의 「癸酉年」 高麗瓦의 제작연대와의 관계 속에서 검토해 보면, 제주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차목되어진다.

우선, 「癸酉年」 比定연대의 前者인 1273년에 관해서는, 이 해에 파멸한 삼별초 (注9)는 제주도에 缸坡頭里土城을 구축(제주도 1993 등)하고 있고, 缸坡頭里土城에서는 여기에서 사용했던 기와를 비롯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缸坡頭里土城 외에는 토성에서 사용한 기와류를 燒成한 窯跡이 남아 있고,¹⁰⁾ 삼별초와의 관계로 부터, 이들의 기와류를 비롯한 자료의 제작·사용연대는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활동한 1273년 전후에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기와류를 비롯한 삼별초관련 자료는, 한국에 있어서 1273년 전후의 다시 없는 표식 자료가 된다.

후자의 1393년에 관해서는, 조선왕조는 제주도 지배에 즈음하여, 제주목의 설치 등 적극적인 시책을 행하고 있고, 이에 동반해서 많은 官衙건축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책에 의한 시설의 양상은 濟州牧官衙址의 발굴 조사(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3, 1998)(注11) 등에 의해 명백히 되어지고 있고, 이들의 성과를 참조하면, 1393년 전후의 건조물에 사용되어진 기와류, 그밖의 유물의 抽出도 가능한 것이 추측되어진다.

이와 같은 점으로부터 보면, 류큐의 高麗瓦연구에는 한국,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의 기와 및 요업연구 성과와의 비교·검토가 가장 유효한 것이 명백하다. 缸坡頭里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제주도와 류큐열도의 교류

土城과 濟州牧官衙址로부터 출토한 기와의 형태와 제작기법의 분석이 진척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류큐열도 출토 高麗瓦의 위치도 반드시 정해질 것이다. 또, 기와류의 분석을 고려하면서 모든 유적·유물에 대한 제주도에서의 고고학적연구 성과는 류큐열도 뿐만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서의 고고학 연구에도, 적지않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1275년부터 1368년 사이에 중국 元朝의 직접 지배하에 놓여진 제주도에서는 직접 통치를 받지 않은 한국본토와는 달리, 중국 元朝의 영향이 고고학적연구의 대상인 유구·유물에도 미쳐, 개개의 형태와 구조 등의 면에서,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와는 연대적 차이·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제주도에 있어서 12~15세기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적 조사·연구성과는 이 시기의 유물과 유적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되고, 한국 및 류큐열도에 있어서의 고고학연구에 파문을 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4. 결론

이상, 개략적으로 한국 및 제주도와 류큐열도와의 교류에 대해서, 류큐열도에서 검출되어지고 있는 물질문화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진술해 보았다. 주로 고려시대 전후에 관계하는 문제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의 고고학적 연구의 틀이나 사고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연대적으로 새로운 시기를 다루어서,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류큐열도에서는 국가형성기가 이 시기에 해당되며 문헌사학측면에서의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 이 시기에 관한 고고학적연구는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계속되어 질 것이 확실하다. 바꾸어 말하면, 류큐열도의 고고학 연구에 있어서 한국내의 고려시대 전후에 관련된 고고학적연구가 진전되,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호교류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또 이 점에 있어서, 제주도도 같은 조건 아래에 있다고 추측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 시기에 관해서는 극히 유익한 물질문화 연구정보를 抽出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이다.

한국과 류큐열도는 사이에 일본의 큐슈제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근년에는 그다지 활발하게 교류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긴 역사 속에서는, 양지역

의 사람들의 교류가 큰 역할을 한 적이 있고, 또 새로운 교류가 금후의 역사 속에서 탄생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금후의 제주도와 류큐열도간의 광범한 연구교류 활성화가 양지역 및 韓·琉관계사를 명백히 해 가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더욱더 교류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謝辭

본고의 투고에 있어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소장 고창석 교수, 인문대학 사학과 김동전 교수의 각별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필자의 제주도에 관한 지식은 두분을 비롯해,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유철인 교수, 同박물관 강창화 학예연구원, 同박용범 조교, 同김정선 조교, 同이상미 조교 및 제주교육대학교 정광중 교수, 그리고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이청규 교수 등 많은 분들의 지도에 의해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注

1. 伊札原B遺跡은 沖繩本島北谷町에 있고, 1997년에 발굴되었기 때문에, 예시한 참고 문헌에는 그 내용에 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漢式三翼鐵은 沖繩本島具志川市宇堅貝塚, 五銖錢은 久米島具志川村清水貝塚 등으로부터 출토되어지고 있다.
大城淵, 「宇堅貝塚출토의청동제품」, 『南島考古だより』 제42호 1990년 2월
具志川村교육위원회, 「清水貝塚발굴조사보고서」, 『具志川村문화재조사보고서』 제1집 1989년 3월
3. 7·8세기대의 일본에서의 문헌기록에는 류큐열도에 관한 기사가 「南島」라는 명칭 아래 기재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遣唐使船의 왕래에 관한 것과 南島人의 來朝기록이다.
4. 류큐열도 출토의 고려청자에 관해서, 西谷正氏は 15세기대의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西谷 1981).
또, 高麗鐘의 전래에 대해서 三島格氏는 조선왕조기에 있어서 斥佛興儒를 요인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三島 1989). 따라서, 류큐열도에 있어서 高麗瓦출토유구 연대가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위치지어진 것을 포함해, 韓·琉간의 교류는 조선시대에 본격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5. 임진왜란 때, 薩摩藩이 운행한 朝鮮人陶工에 의해 개시되어진 요업은 지금도 薩摩燒로 알려져, 1998년 가을 鹿兒島에서 400년 축제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6. 류큐왕국의 대외교섭기록은 「歷代寶案」으로써 편집되어져 있고, 여기에는 1372년의 遣明使부터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7. 高麗瓦출토유적은 류큐열도에서도 沖繩本島에 한정되고, 현재 10수 유적이 알려져

물질문화상으로 본 한국제주도와 류큐열도의 교류

있다.

8. 高麗瓦가 처음으로 채집되어진 것은 沖繩本島浦添城으로 이것을 쌓았다고 되어지는 英祖王은 1229년부터 1299년 사이에 在立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1273년설은 이것을 전제로써 주장되었다.
9. 삼별초에 관해서는 제주대학교 김동전 교수로부터의 많은 도움과 동시에, 관계 문헌의 惠與를 받았다.
10. 缸坡頭里上城 및 성밖의 요업에 관해서는 1998년 11월 6일 제주대학교 김동전 교수, 영남대학교 이청규교수, 제주교육대학교 정광중 교수의 안내로 견학했다.
11. 濟州牧官衙跡出土遺物에 관해서는 1998년 11월 10일 제주대학교 박물관 강창화 학예연구원 및 박용범 조교의 도움 아래, 직접 보았다.

參考文獻

- 李亨求 1989 「古代琉球와 朝鮮의 文化關係」『琉中歷史關係論文集』第二回琉中歷史關係國際學術會議報告
- 伊東忠太·鎌倉芳太郎 1937 『南海古陶瓷』
- 池田榮史 1991 「沖繩考古學의 現狀과 課題」『MUSEUM』(동경국립 박물관미술지)489호
- 上原 靜 1996 「首里城의 高麗系瓦와 大和系瓦一西의 아자나地區의 資料一」『沖繩縣教育廳文化課紀要』12호
- 大川 清 1962 「琉球古瓦調査抄報」『琉球政府文化財要覽』1962년도판
- 岡田 芳朗 1960 『沖繩·八中山』(瀧口 宏편)
- 岸本義彦他 1984 「野國一野國貝塚群B地點發掘調査報告一」『沖繩縣文化財調査報告集』57集
- 國分 直一 1959 「史前時代의 沖繩」『日本の 民族·文化一日本の 人類學的研究一』
- 1966 「南島의 先史土器」『考古學研究』12권 2호
- 濟州大學校博物館·濟州市 1993 「濟州牧官衙址」『濟州大學校博物館調査報告』第12輯
- 濟州市·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濟州牧官衙址』
- 濟州 道 1993 「第 5章二別抄와濟州島」『濟州 道誌』第1卷
- 下地 安廣 1986 「高麗系瓦의 製作技法考察(1)一 浦添城跡出土의 瓦를 중심으로 一」『南島考古』10
- 1990 「高麗古瓦에 관해서」『月刊考古學저널』6月호
- 1997 「朝鮮과 琉球」『考古學에 의한 日本歷史』10 (對外交渉)
- 關口 廣次 1976 「沖繩에 있어서의 造瓦技術의 變遷과 그 사이의 事情」『考古學雜誌』62권 3호
- 高宮 廣衛 1993 『沖繩繩文土器研究序說』

耽羅文化 19號

- 1994 『沖繩의 先史遺跡과 文化』
高元 政秀 1972 「沖繩에 있어서의 原始社會의 終末」『南島史論』
田中 健夫 1991 「中國·朝鮮의 史料에 보이는 琉球」『新琉球史』
多和田眞淳 1956 「琉球列島の 貝塚分布와 編年の 概念」
『琉球政府文化財要覽』1956년도판
當眞嗣一·上原 靜 1987 「首里城正殿跡의 調査」『沖繩縣教育廳文化課紀要』4호
中村 愿 1981 「曾畑式土器」『繩文文化의 研究』3
西谷 正 1981 「高麗·朝鮮兩王期와 琉球의 교류」『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施設紀要』
제26호
比嘉 景常 1942 「琉球의 土器」『民藝叢書』4편
三島 格 1977 『貝을 둘러싼 考古學』
1989 『南島考古學』(南島文化叢書10)